

윤활소식

S K (주)

30년 '산유국의 꿈' 해외에서 이룬다

81년이후 30여개 기업 해외유전개발 참여
베트남,리비아,미얀마등서 잇따라 결실
국내자본,기술로 동해 가스전 개발 성공도
“영일만에서 양질의 석유가 발견됐다.”

1976년 1월15일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흑백TV를 통해 지켜보던 국민
들은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우리나라
도 산유국이 됐다”는 대통령의 발표는 1
차 오일쇼크의 악몽을 기억하고 있는 전국
민을 흥분의 도가니로 밀어넣기에 충분했
다. 그러나 “시추장비의 유회율을 원유로
착각했다”는 정부당국의 발표가 곧 이어
졌고, ‘산유국의 꿈’은 그렇게 물거품처
럼 사그러드는가 싶었다.

그로부터 30여년 뒤 우리나라의 ‘산유국
의 꿈’은 바다 건너 베트남과 리비아에서
‘검은 황금’을 발굴해 내면서 되살아났
다. 2003년 베트남 호치민시에서 헬기를 타
고 50분을 들어간 베트남 15-1광구(혹사자
유전)에서 솟구쳐 오른 시추탑의 불꽃은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비산유국의 설움
을 단숨에 씻어주었다.

◇석유에 대한 목마름=비산유국인 우리나
라는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의지하는 중
동에서 뭔가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극심한
몹살을 앓는다. 따라서 우리에게 ‘산유
국’은 도저히 버릴 수도, 버려서도 안되
는 꿈이다.

산유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석유개발
사업은 79년 석유공사를 설립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국내 대륙붕 개발과 함께 해
외유전개발은 81년 5월 코테코에너지와 인
도네시아 국영석유사(PERTAMINA)의 마
두라 광구 공동개발 계약으로 첫발을 내디
뒀다.

81년 이후 30여개의 민간기업이 해외 유
전개발사업에 참여했다. 석유공사를 중심으
로 참여한 예멘, 베트남, 리비아등지에서
대규모의 유전과 가스전을 발견하여 생산
중이며 영국, 페루, 베네수엘라, 인도네시
아 등 유전에 참여, 자주개발 원유확보에
노력했다.

그러나 98년 이후 저유가와 IMF(외환위
기)는 석유개발사업의 기반을 흔들었다. 많
은 기술인력이 기업을 떠나고, 참여하고 있
던 광구로부터 많은 기업들이 철수하며 현
재까지도 후유증을 앓고 있다.

해외유전개발에 대한 투자가 IMF 이후
급격하게 감소됐지만 2000년에 들어서며 하
나씩 결실을 거두고 있다. 베트남에서는 금
세기 최고의 발견이라 할 만한 15-1광구에
서의 성공사례를 비롯해 올해초 생산을 개
시한 리비아 엘리펀트 유전도 성공적이다.
또한 연초 미얀마에서 들러온 초대형 가스전
발견소식 또한 20년 투자의 값진 결과다.

◇한국도 산유국=지난 7월11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험생산에 들어간 ‘동해-1’ 가
스전은 69년 국내 대륙붕개발탐사가 시작된
이래 35년 만의 성과다. 울산 앞바다에 있
는 이 가스전의 매장량은 500만톤 정도. 연

운활소식

간 국내 가스소비량이 8,000만톤에 달하는 것에 비춰보면 한 달치 소비량도 안된다. 그렇지만 순수 우리 기술과 자본으로 경제성 있는 가스전 개발에 성공한 첫 케이스라는 점에서 단순한 경제적 가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현재 추진중인 해외유전개발에 자신감을 가지게 했다. 산유국의 꿈을 꼭 국내에서 이뤄야 한다는 법은 없다. 대한민국은 이미 산유국인 셈이다.

해외유전개발은 베트남, 리비아, 페루, 영국 등 총 38개국 117개 사업에 석유공사와 SK, LG칼텍스정유 등 민간기업이 진출, 2003년 현재 23개국 57개 사업(생산 23, 개발 11, 탐사 23)이 진행중에 있다. 투자 및 회수실적은 42억3,500만달러가 투자돼 34억5,100만달러가 회수, 81%의 투자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지구촌이 비좁다 = 지구 반대편 페루의 밀림 카미시아. 우리 국민들에게 이름조차 생소한 아마존 밀림지역인 이 곳이 SK(주) 직원들에게 이웃나라 일본보다도 더 가깝다. 유, 가스전 개발사업에 참여하며 페루라는 나라가 이웃이고 친구가 됐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들의 해외유전개발 지역이 중동·동남아시아에서 벗어나 카스피해·아프리카·중남미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카스피해는 개발 잠재력에서 제2의 중동으로 부각되며 정부와 민간기업이 보조를 맞추며 인근 국가와 자원협력을 추진중이다.

현재 카스피해에서 생산 중인 유전 중

최대 유전은 카자흐스탄 텐기즈(Tengiz)유전. 확인매장량만도 60억배럴에 이르는 대형 유전으로 세브론텍사코, 엑슨모빌 등 석유메이저들이 카자흐스탄 국영 석유회사와 합작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석유와 광물자원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시장 진입이 쉬운 지역으로 꼽힌다. 아프리카도 이미 많은 석유메이저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국가가 많고 부족도 많다 보니 틈새시장을 찾는다는 측면에선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훨씬 높다.

LG-Caltex 정유(주)

LG강남타워로 새롭게 이전합니다!

항상 변함없이 LG정유 운활유를 아껴 주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LG정유 운활유부문이 오는 8월 23일 LG강남타워로 다시 새로운 등지를 틀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LG정유 운활유부문은 경쟁력 있는 운활유 산업의 리더로 가일층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항상 더 나은 모습으로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두가 합심하여 정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과 격려의 말씀은 부탁 드리오며, 새로운 각오로 고객과 함께

운활소식

더욱 발전하는 LG정유 운활유부분이 될 것을 다시 한번 약속 드립니다.

이전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79(LG강남타워 8층)

SIGMAPAO 국내유일 BMW 승인 획득!

회사의 최고급 100% 합성엔진오일 SIGMA PAO 제품이 국내회사 최초로 유일하게 BMW 규격을 승인받았습니다. (2004년 3월 18일) BMW 규격은 세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규격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써 100% 합성엔진오일 SIGMA PAO는 확실하게 그 성능을 검증받은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동변속기유(KSM 2125) 인증 획득

운활유공장은 2003년 12월 30일 산업표준화법 제 11조에(제 12조, 13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 표준협회 KS인증본부로부터 자동변속기유(KS M 2125)의 KS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하였습니다.

이로써 운활유공장은 13개 품목에 이르는 KS 인증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ISO 9001-2000 과 QS 9000 등의 시스템 인증과 함께 대외 공신력의 확보와 운활유업체의 선도적 위상을 갖추게 되었으며 품질검사 수수료 등의 절감으로 영업적인 원가 경쟁력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인증은 대외적인 공신력을 확보하고 진일보된 업무 프로세스를 정립하고자

품질경영 주요 원칙을 바탕으로 품질경영에 대한 확고한 기반 구축과 고객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겠다는 의지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운활유공장은 금번 KS 인증을 계기로 품질경영 마인드를 한층 높여 운활유공장이 업계 최고의 공장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셀석유(주)

차세대 유압작동유 텔라스 출시

- 특허받은 독자적인 첨가제 기술
- 차세대 텔라스, 기계 성능 향상과 수명 연장에 경제성까지

유압시스템의 성능 향상과 비용 절감에 기여할 새로운 유압작동유(Hydraulic oil)가 등장했다.

한국셀석유주식회사(대표: 金東洙)는 최근 차세대 유압작동유 텔라스(Next Generation Tellus, 이하 차세대 텔라스)를 출시했다. 차세대 텔라스는 기존의 한국셀 텔라스 제품의 장점을 살리면서 성능을 강화한 제품으로, 기계의 관리 주기를 최대 100%까지 늘려 주어 이에 따라 기계의 수명도 연장시켜 준다.

회사는 새 제품의 개발 동기로서 유압 기술의 발달과 이에 따라 유압작동유에 가해지는 압력의 증가 와 이에 걸맞는 고성

윤활소식

능 윤활유가 필요 하게 되었음을 들었다.

유압 시스템에 발생하는 이상이나 고장의 70%가 부적절한 윤활유의 사용이나 오염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저가의 저성능 유압작동유는 장비의 부식과 오염, 슬러지, 필터막힘, 과도한 마모를 발생시키고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게 한다.

차세대 텔라스는 특허받은 독자적인 첨가제 기술로 온도와 하중에 관계없이 기계의 청결과 성능을 유지한다. 기계의 고장과 산화부식을 막아주는 가수분해 안전성과 기계수명을 연장시켜주는 뛰어난 산화안전성과 열안정성은 운영비를 최소화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회사는 쉘 본사의 제품 개발과정에서 차세대 텔라스를 플라스틱 몰딩 기계에 시범적으로 사용해 본 결과 주당(週當) 73분에 달하는 생산성 향상에 회사 전체적으로는 연간 1만5천 파운드의 경비 절감효과를 기록 했다며 텔라스를 통해 유압시스템의 유지 및 가동비용 절약 등 경제성을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텔라스 오일은 현재 세계적인 유압 펌프 제작사가 승인하고 주요한 OEM에 추천되고 있다.

한국셀석유주식회사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로얄 더치/쉘 그룹의 일원이며, 지난 1969년 설립되어 현재 산업용, 자동차용, 선박용 윤활유 등 다양한 종류의 윤활유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중견기업이다.

* 문의: KPR/하대관 과장/조민선

(Tel. 02-3406-2235 / 011-9022-0702)

한국셀석유주식회사/정용한 과장/김은영

(Tel. 02-3149-5498)

모빌코리아윤활유(주)

**Bentley Continental Gt 쿠페의 공장급유로
독점 공급되는 Mobil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4인승 쿠페가 선택한 세계 일류 자동차용 합성 오일

FAIRFAX, Virginia (2004년 5월 3일) - 엑손모빌사는 자동차용 합성 오일 Mobil 1 이 정상급 Bentley Continental GT에 OEM 방식(공장급유)으로 공급하게 되었다고 오늘 발표했다. 앞으로 신형차는 공장에서 점도 등급 SAE 0W-40의 모빌 1으로 충전되며, 벤틀리는 운전자들에게 차후에도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 급유로 모빌 1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엑손모빌사와의 관계를 통해 전세계의 벤틀리 딜러들은 차량의 안정성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차 오일을 고객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벤틀리 모터사의 에프터 서비스 담당 이사 마이크 모리스는 말한다. “엑손모빌사는 거주 지역, 운전 방법에 상관없이 우리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자동차 오일을 만들어냈으며, 공급한다.”

“시속 198마일에 달하는 속도를 가진 Continental GT는 고성능 자동차이다.” 엑

윤활소식

손 모빌 윤활유 & 석유 전문 회사의 사장 Jerry Kohlenberger는 계속 말한다. “그러한 고성능을 위해서는 최고 품질의 오일이 필요하다.” 우리는 Bentley Continental GT의 자동차 오일로 채택된 데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느낀다. 더욱이 이번의 쾌거는 최고의 엔진 효율을 제공하도록 돕겠다는 고객에 대한 약속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모빌 1은 Continental GT에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한다. 여기에는 연료 사용의 효율성, 뛰어난 윤활유 흐름 특성, 우수한 엔진 마모 방지 등이 포함된다. 모빌 1은 -45° C (-49° F) 에서 +200° C (+392° F) 범위의 온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빌 1 0W-40은 고성능 슈퍼, 터보 충전용 엔진에 더할 나위 없이 적합하다.

모빌 1은 병 단위 또는 4병들이 상자로 포장되어, 영국 Crewe에 있는 벤틀리 부품 본부를 통해 전세계의 벤틀리 딜러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벤틀리 딜러는 엑손모빌과 직거래로 구매할 수도 있다.

수많은 선발 자동차 제조업체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모빌 1은 다른 고성능 차량에 OEM으로 공급되고 있다.

엑손모빌사의 윤활유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 <http://www.exxonmobil.com> 을 참고하십시오.

(주)범우화학공업

은탑훈장유공자 신우진(辛禹鎭) 대표이사

신우진 사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

여 품질경영 혁신활동을 통해 고객만족경영, 정보 INFRA 구축, 인적자원 육성, 중기전략 개발 및 전략적 방침관리를 운영하여 고객 맞춤형 및 환경친화적인 제품개발 공급하여 고객의 제품품질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고객의 Needs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주 생산품 중 압연유의 윤활성, 환경친화형, 밀크린성 및 초극박 초고속 냉간압연성의 기술성을 높이기 위하여 우수 고객사인 POSCO부설 기술연구소인 RIST와 신기술을 공동개발하여 이와 관련한 특허 3종(특허 093165)을 획득하였으며 분산형압연유, 냉간압연유 등을 자체적으로도 개발하여 관련 특허 4종(특허22117)을 획득하였고, 그 결과 고객사로부터 (POSCO 2회, 현대자동차 1회, 연합철강 1회 등) 우수협력업체로 지정받았으며, 현재는 국내시장 M/S가 90% 이상을 선점하고 있다.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된 범우의 기술을 폴란드, 인도 등에 수출하여 매년 20만불의 로열티를 받아 외화 획득에 일조하고 있고 01년에는 중국공장을 설립, 낙후된 중국시장에 범우기술을 전파하여 02년 680만불에서 03년 1,077만불의 수출 실적으로 58.4% 증가하는데 기여 하였다.

또한 우수인력 확보와 분야별 책임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바람직한 능력을 육성하는 리더십 과정과 직급별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을 육성하는 기본업무능력과정, 해당 직무의 전략목표나 전문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운할소식

을 육성하는 직무전문과정, 부문별 요구를 반영하는 특별교육을 회사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정착, 실행하여 개인능력 향상과 더불어 조직의 목표달성에 기여하였다.

그 결과, 인당 교육시간이 99년 62.3시간에서 03년 96시간으로 54% 증가하였고 간부 교육 시간도 99년 21.8시간에서 03년 40시간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한 표준화 교육시간도 99년 2,824시간에서 03년 2,947시간으로 4.4% 증가하고 있다.

산업특성상 까다로운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장개척을 위하여 필수적인 R&D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산학공동개발, 선진기술도입, 자체적인 신기술을 개발 등 R&D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신제품 매출액이 01년도에 10억7천, 02년도 82억6천, 03년에는 117억 2천으로 지속적인 상승 추세에 있고 냉간압연강판용 방청유 조성기술, 초극박 경질재 냉간압연유 조성기술 등 자체 개발을 통해서 품질 향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CI(염소) FREE 형 Heading Oil 조성기술, Long Life (롱 라이프) Bio-Static 절삭유 조성기술 개발 등을 통해 친환경적인 제품을 고객사에 공급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환경경영 실천으로 공정/작업표준화, 설비 및 유틸리티 개선을 통하여 폐수가 140.8톤에서 108톤으로 23.3% 감소, 폐유는 13.17톤에서 7.13톤으로 45.9% 감소, 폐기물이 3.38kg에서 3.0kg으로 11.2% 감소하여 환경오염 물질 발생량을 억제하여 지구환경 보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물 전자가 살균·세척 효과 발휘해...
의약·화장품으로 확장 계획**

운할유 및 방청유 전문기업인 범우화학이 물의 살균력을 이용한 바이오산업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며 매출 확대를 노리고 있다.

2000년대부터 역점사업으로 추진해온 바이오 세정제 사업이 가정용, 산업용 제품 출시와 함께 사업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2003년 전체 매출의 10% 가량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어 2004년에는 대기업 중심으로 수요처가 확보되는 등 오랜 노력의 결실을 거두고 있다.

바이오세정제는 물을 전기분해해 물의 클러스터를 2/3크기로 축소시킨 후 다량의 전자를 투입하여 미세한 이물질에 대한 세척성과 살균성을 강화시킨 물이 99.7% 함유됐다.

범우화학이 수용성 운할유의 제품개발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물이 운할유의 유화성, 침투성, 내부식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꾸준한 연구 결과물을 신사업에 접목한 것이다.

범우화학이 생산하고 있는 바이오세정제는 가정용 세정제인 <GC-100X Series>, 의료용 살균세척제 <GC 1000>, OA전용 세척제 <GC 2000>, 초정밀 산업용 세척제 <GC 3000> 등이 있다.

<GC 3000>는 미크론 단위의 정밀한

운활소식

Particle을 제거할 수 있어 정밀성이 요구되는 TFT-LCD 및 CRT, PDP 유리판리에 사용되며 이미 일본전기초자에 공급하고 있고, LG필립스에서도 테스트가 진행중이며, <GC 2000>은 삼성디지털플라자, 리빙플라자에 지정제품으로 선정돼 출고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세계는 계면활성제와 알칼리제로 기름때나 얼룩제거를 위한 것이지만 <GC-100X Series>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잔류농약, 잔류 세제 찌꺼기 등 마이크론 단위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있는 격이다.

현재 한국까르푸, 신라호텔, 63시티, 현대백화점 식품부 등에 공급하고 있고 2005년부터 공격적인 홍보를 통해 실수요자인 주부들에게 어필할 계획이다.

범우화학은 “바이오 신사업으로 2005년 하반기에는 50억-6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일본 AI시스템과 합작해 물의 살균력을 이용한 의약품과 화장품의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고 밝혔다..

조만간 코스닥 상장 또한 추진하고 있어 사업 다각화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협회 제15대 회장 및 제11대 임원 개선

협회는 지난 6월10일 2004년도 제2차 이사

회 및 제1차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2004년 6월18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감사 회장단을 각각 선임 하였다.

임기는 2004년 6월19일부터 2007년 6월18일까지 3년이며 개선된 임원은 아래와 같다.

- 회장 : 박봉균 (SK(주)상무)
- 부회장 : 최천행 (삼성정유(주)사장)
- 상근부회장 : 이현배 (한국윤활유공업협회)
- 이사 : 김용식 (LG-Caltex정유(주) 상무)
 - 김동수 (한국셀석유(주) 사장)
 - 박병구 (모빌코리아윤활유(주) 사장)
 - 유재순 (미창석유공업(주) 사장)
 - 정상일 (토탈이수오일(주) 상무)
 - 유용진 (S-OIL(주) 부장)
- 감사 : 신원범 ((주)한국발보린 사장)
 - 김 철 (한국혹스윤활유(주) 사장)

협회 새로 부임하신 이현배 상근부회장

협회는 지난 6월18일 2004년도 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2004년 6월 18일 임기가 만료된 정천석 상근부회장의 후임으로 이현배 상근부회장을 임기 3년(2004년6월19일 ~ 2007년6월18일)으로 선임 하였다.

이현배 상근부회장은 충청남도 홍성 출신(1944년생)으로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제2대 상임 집행위원장을 거쳐 (주)조양 대표이사, (주)대흥 고문으로 활동하시다가 (사)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